

가족공유활동 증진을 위한 여가활동의 세대간 통합방안

윤 소 영(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여가·민투센터장)

I. 문제제기

현대사회에서 가족의 불안정성은 가족이 함께 공유하는 활동의 필요성을 증가시키고 있다. 즉 가족 공유시간 동안의 공통의 경험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는 등의 정서적 관계활동이 가족관계의 질적 향상에 기대할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다. 실제 가족원들이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각 개인들은 가정 외부에서 받는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고 더 나아가 개인 및 가족생활에 대한 만족을 증가시킬 수 있다(천혜정, 2004)고 한다. 그러나 가족간의 공유활동을 늘리고자 하는 노력은 쉬운 일이 아니며, 어떠한 활동을 공유하는가에 따라 오히려 불만을 야기할 수도 있다(윤소영, 2009)는 점에서 공유활동 자체가 중요하다고 인식된다.

가족간의 공유시간 동안 만족감을 증가시키며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대표적인 활동으로 여가활동을 들 수 있다. 즉 가족단위 여가활동은 스스로 원하는 활동을 선택하여 공유한다는 점에서 만족감을 높이고 가족관계를 활성화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본질적으로 여가활동은 개인의 자율적인 선택과 자발적인 참여가 기초되어야 한다. 그런데 가족단위의 여가활동을 강조하다보면 개인의 욕구와 선호와 다른 공유활동을 선택해야 하는 가족원도 생기며, 가족들의 구성원 모두의 욕구나 선호 자체도 파악되지 않은채 권력을 가진 구성원이 결재하여 동참해야 하는 경우도 따르게 된다. 특히 가족구성원의 구성이 성별로, 연령별로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우려가 현실화될 수 있다. 이는 오히려 가족공유의 활동을 통해 불만을 가중시키게 된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건강한 가정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가족간에 함께 공유하는 시간을 증가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서 여가활동을 공유하여 가족 구성원의 세대간 통합을 증진시키기 위한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각 세대에 여가활동과 여가환경의 차이를 살펴봄으로써 세대간 차이를 좁힐 수 있는 방법과 통합하여 공유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선행연구 고찰

1. 가족공유활동 증진과 여가활동

가족의 불안정성이 나타나는 현대사회에서 가족이 함께하는 여가활동은 가족간의 공유활동이라는 측면에서 가족간의 갈등이나 관계적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중요한 기제로 인식되고

있다. Kelly(1997)는 사람들이 여가나 가족의 중요성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사람이 함께 있다는 것 자체가 삶의 핵심이 된다는 것을 확신한다고 했다. 즉 가족단위의 여가는 가족이 함께 여가를 계획하고 즐기는 가운데 상호작용과 의사소통을 도와주며, 부모와 자녀가 함께 하기 때문에 가정교육을 위한 장이 된다고 하였다. 결국 가족단위의 여가활동이 가정의 안정성과 가족원의 결합력을 발달시키고(양영아, 1996), 가족의 이해와 신뢰감의 배경이 되며(지영숙, 1999), 가족간의 친밀감, 즐거움, 자녀교육, 가정생활의 활력소, 휴식, 건강 및 체력증진, 문화적 경험을 얻을 수 있다(최보아, 2003)고 볼 수 있다.

이때 여가를 통해 가족이 공유하는 활동(joint activity)이란 여가활동을 통해 높은 수준의 상호작용을 하고, 의사소통을 개발할 뿐 아니라 이를 통해 역할의 상호변화를 증진시키는 활동(윤소영, 2009)을 말한다. 이에 대해 Orthner(1975)는 가족여가활동의 유형 가운데 개인활동(individual activity)과 병행활동(paralled activity)과는 구분하여 공유활동(joint activity)을 통한 가족여가활동이 만족도가 높다고 했다.

결국 가족이 함께 공유하는 여가활동은 궁극적으로 가족생활만족도를 높이고 가족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기여한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즉 부부들은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는 재미있는 여가활동에 같이 참여하게 되면서 부부관계의 질과 만족도를 높일 수 있지만(최석호, 2004), 가족이 여가시간을 함께 보내지 않을 때에는 청소년들의 비행이 더 많이 발생하게 되므로(Robertson, 1999) 부모가 비행청소년들과 여가시간을 함께 함으로써 건전한 여가활동의 학습이 필요하다(이문진 외, 2009).

2. 여가활동의 세대간 차이와 여가경력

일반적으로 여가활동에 대해 연령 개념으로 접근하는 방법은 두가지 이다. 첫 번째는 여가활동에 대한 생애주기적 접근이다. 이때 생애주기적 접근은 일생에 걸쳐 여가에 대한 관심의 변화와 행동상의 변화를 고찰하며, 지속적으로 여가경력을 개발하는데 초점을 둔다. 즉 생애주기 초기부터 지속적으로 여가활동에 대한 경험과 체험을 통해 개인의 여가경력은 개발되고, 이러한 여가경력 개발을 통해 생활의 만족과 행복수준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생애주기적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생애주기 초기의 여가경험(초기 사회화)과 경험을 지속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것이며, 생애주기별로 발달과업을 달성하도록 돕는 것이다.

두 번째는 동시대를 같이 살고 있는 연령별 여가활동의 차이와 요구수준에 대한 것이다. 이러한 횡단적인 분석도 생애주기적 관점과 비슷하게, 기본적으로는 각기 다른 세대가 그들의 유아기, 아동기, 청소년기, 장년기 등을 거치면서 사회환경의 변화에 따라 다른 여가경험을 겪는다고 가정한다. 예를들어 아동기나 청년기에 전쟁을 겪은 세대는 한국사회의 근대화 과정에서 근면과 성실을 모토로 하는 새마을운동을 통해 사회의 일꾼으로서 소명을 다하는 책임을 가졌으며, 반면 현재의 10대와 20대들은 극단적인 일중독보다는 일과 삶의 균형을 통해 삶의 질을 추구하는 경향을 나타낸다고 볼 때, 사회환경적인 변화요인에 따라 개인의 여가생활과 경험은 매우 다르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차이는 단순히 활동의 차이뿐 아니라 여가에 대한 가치관에도 차이를 보이고 심지어 세대간의 문화격차로 나타나기도 한다. 이에 대해

Rojek은 개인의 여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맥락의존성을 복원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하였다. 즉 여가는 사회적으로 조건이 부여되는 영역이며, 따라서 법률, 정책, 산업, 삶의 질 측면에서 진지하게 다루어야 할 중요한 사회제도적인 영역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여가활동에 대한 연령 개념의 접근방법인 두가지를 모두 사용하고자 한다. 즉 개인의 여가경험은 아동기 초기부터 지속적으로 어떻게 발전시키는가가 가장 중요하다는 관점에서 생애주기적 관점을 취하며, 또 같은 시기를 살고 있는 개인들도 개인이 각자 경험한 과거의 경험과 사회환경적인 조건에 따라 여가경험은 다르다는 사실에 근거한다.

III. 연구방법

본 연구의 목적은 두 가지이다. 그 첫 번째는 세대간의 여가활동과 여가환경은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를 확인하는 것이며, 두 번째는 가족을 구성하는 다양한 세대가 통합하기 위한 가족 여가활동과 활성화 방안을 제안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료는 ‘2012 국민여가활동조사’ 원자료(문화체육관광부)이다. ‘2012 국민여가활동조사’는 다양하고 변화되는 국내 여가환경변화에 따라 국민의 여가수요에 미치는 활동실태를 분석하여 생활양식의 변화와 삶의 질 수준을 파악하고자, 2012년 10월 10일부터 한달동안 조사된 전국단위의 통계청 승인통계자료(승인번호 제 11314호)이다. 전국 16개 시·도 지역의 만 15세 이상 성인 남녀 5,000명을 대상으로 일대일 방문면접조사를 실시한 결과, 최종 유효 응답자수는 5,0003명에 달한다.

국민여가활동조사의 조사내용 가운데 본 연구에서는 연령별(10대/20대/30대/40대/50대/60대/70대이상)로 주로하는 여가활동(유형별 주여가활동), 가장 만족스러운 여가활동, 여가시간(평일과 휴일), 여가비용 등의 여가자원 및 여가활동 실태에 대한 차이를 분석하고, 여가시간 만족도(5점 척도, 평일과 휴일), 여가비용충분도(5점 척도), 전반적인 여가생활만족도(4점 척도), 주관적 행복수준(10점 척도)에 대한 차이를 분석하였다. 자료분석방법은 SPSS Win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였으며, 빈도와 백분율, 상관분석, ANOVA, Duncan검증을 사용하였다.

IV. 연구결과

본 연구를 통해 발견된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연령별 주여가활동에 대해 여가활동유형별로 살펴보면, 휴식활동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참여비율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며, 반대로 취미오락활동은 연령이 적을수록 참여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0대와 20대 연령층은 온라인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취미오락활동이

1) 본 연구는 세대에 대한 대응변수로 연령집단을 구분하여 사용함. 실제 세대구분에 대한 선행연구를 고려하였지만 가족구성원의 다양한 연령대별 구성을 고려할 때 세분화된 연령대로 구분하여 차이를 살펴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함.

두드러지게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문화예술 참여활동과 스포츠관람활동은 10대의 참여율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30대와 50대의 순서로 나타났다. 40대의 경우 다른 활동에서는 전반적으로 참여율이 낮으나 스포츠참여활동은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관광활동은 30대 비율이 다소 높았고, 문화예술관람활동은 20대가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10대, 30대와 40대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현재 즐기고 있는 여가활동 가운데 가장 만족하는 여가활동에 있어서, 10대는 인터넷관련 활동이 가장 높았고 20대는 영화보기, 30대는 쇼핑이나 외식, 40대~50대는 등산, 60대는 산책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함께 즐기는 동반자나 여가를 즐기는 목적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즉 여가활동 동반자의 경우 10~20대에는 친구와 함께, 30~50대는 가족과 함께, 그리고 70대 이상은 혼자서 즐기는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여가활동의 주된 목적 역시 10~20대는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30~40대는 마음의 안정과 휴식을 위해, 50~70대는 건강을 위해 여가를 즐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현재 여가활동에 사용하는 시간량은 연령대별로 많은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평일의 경우 10대의 여가시간이 2.6시간으로 가장 적은 반면, 그 다음으로는 30대(2.8시간), 40대(3시간)와 50대(3시간), 20대(3.1시간), 60대(4.1시간), 그리고 70세 이상(5.9시간)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휴일의 여가시간은 10대(4.8시간), 30대(4.8시간), 50대(4.8시간), 40대(4.9시간)가 비슷한 정도로 가장 적었으며, 그 다음으로 60대(5.2시간), 20대(5.6시간), 70세 이상(6.5시간) 순으로 나타났다. 희망하는 여가시간과 현재 사용하는 여가시간을 비교한 결과, 평일의 경우 70세 이상 집단의 차이(19분)가 가장 적고, 그 다음으로 60세(47분), 50대와 20대와 40대(1.2시간), 그리고 30대(1.3시간), 10대(1.4시간)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휴일의 경우 희망하는 여가시간과 현재 사용하는 여가시간의 차이는 70세 이상(21분)이 가장 적고, 그 다음으로 60대(55분), 20대(57분), 50대(1.1시간), 그리고 10대와 40대와 30대((1.4시간~1.5시간)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요구와 현실의 격차는 여가시간만족도에 영향을 미쳐, 평일과 휴일의 격차가 가장 심한 10대와 30대의 여가시간만족도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셋째, 여가생활을 위해 한달 평균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도 연령대별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즉 70세와 10세의 지출비는 가장 적어 한달 평균 약 6만원 정도인 반면, 60대는 약 11만원, 50대는 약 14만원, 40대는 약 15만원, 30대와 20대는 약 16만원 정도 지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지출비에 대해 주관적인 인식은 모든 집단에서 부족하다고 인식하지만(평균 2.7점/5점 만점) 이 중에서 특히 10대들(평균 2.43점)이 가장 부족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여가활동에 대한 자원 제약은 여가생활의 만족과 연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여가활동을 위한 대표적인 자원인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연령대별로 제약을 인식하는 정도가 각기 다르다는 것이다. 10대의 경우에는 여가시간도 적고 지출하는 비용도 적어 여가만족도가 가장 낮은 집단이 되며, 70대 이상은 여가시간은 많으나 관련 지출비는 가장 적다고 인식하여 여가생활의 불만족의 가장 큰 이유로 경제적 부담을 제시하고 있다.

다섯째, 가족단위 여가활동은 기본적으로 세대간의 통합을 전제로 한다고 볼 때, 위와같이 세대별로 여가활동에 대한 차이와 제약조건의 차이를 개선하는 방안에 대해 제안할 수 있다. 각 세대별로 부족한 자원과 여유로운 자원을 교환하고 이를 통해 세대간의 교류를 활발히 하

는 방안으로서 여가활동의 방법론이 제안될 수 있다. 구체적인 여가활동으로는 가족간의 공유가 가능한 활동(댄스, 야외활동, 캠핑 등)이 제안되며, 이를 위해 가족이 함께 동호회에 가입하거나 온라인 공간을 공유하는 방안도 제안된다.

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여가활동과 여가자원의 환경조건이 연령별로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보고, 그러한 차이를 극복하거나 공감할 수 있는 가족여가활동에 대한 제안을 하고자 한다. 따라서 가장 기본적으로는 여가활동을 통해 가족이 함께하는 것이 각자의 부족한 여가시간과 금전 등 자원 제약 부분을 보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을 인지해야 할 것이다. 특히 60대나 70대 이상의 고령층은 여가시간은 많으나 금전적인 제약이 있다는 점에서 10대들의 시간부족을 보충할 수 있는 파트너가 될 가능성이 높다. 즉 가족안에서 고령층과 10대가 여가활동을 통해 자연스럽게 연계함으로써 서로가 멘토-멘티 역할을 할 수 있는 활동내용을 찾아야 할 것이다. 또한 10대들의 금전적인 제약은 30~40대인 그들의 부모와 함께 함으로써 극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서로의 공통의 고나심사를 함께 할 수 있는 방안이 요구된다.

이와같이 여가활동의 내용과 만족스런 여가활동의 차이, 그리고 여가자원에 대한 만족정도나 제약조건이 다른 연령집단간에 함께 공유하기 위한 시간을 늘리고 상호작용을 증가시킬 수 있는 방안은 공통의 관심사를 찾아가는 방법과 다른 활동에 대한 참여를 서로 인정하면서 최소한의 공유부분을 찾는 방법이 제시될 수 있다. 전자의 경우 가족원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여가활동을 통해 얻고자 하는 목적에 따라 공통의 관심사를 새로 찾아가는 방법이 제안될 것이다. 즉 신체적인 건강을 이루고자 할 경우 가족들이 새로이 관심을 가지고 같은 수준에서 시작할 수 있는 운동 종목을 함께 시작하고, 지속하기 위해 동호회 활동이나 커뮤니티 활동에 참여하는 방안이 제안된다. 후자의 경우 각 연령대별로 서로의 관심사가 다르고 만족하는 활동이 다르다는 점을 인정하고 각자의 생활영역을 존중하는 방식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한 공유할 수 있는 시간대와 각자 활동에 대해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제안된다. 또한 각자의 활동을 서로 권해보고 새롭게 진입해 가는 방법을 통해 경험치를 증가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후자의 방법은 가족원 스스로 진행하거나 지속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전문가나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출발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

[참고문헌]

- 노용구(2005). 건강한 가족문화를 위한 여가정책. **한국여가레크리에이션학회지** 28, 5-15.
윤소영(2009). 가족여가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7(4), 189-201.
양영아(1996). **중산층의 가족여가활동 실태와 요구 조사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지영숙(1999). 가족여가의 생활적 의미 연구.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3(1), 83-94
- 최석호(2004). 가족과 여가. *여가학연구*, 1(3), 45-56.
-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12). 국민여가활동조사 원자료.
- Berg, B. L.(2007). *Qualitative research methods for the social science*(sixth edition). Allyn & Bacon.
- Bittman, M. & Wajcman, J.(1999). The rush hour the quality of leisure time and gender equity.SPRC Discussion Paper No.97, 1-39.
- Gerson, W. M.(1960). Leisure and marital satisfaction of college married coupl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22(4), 360-361.
- Heuser, L.(2005). We're not too old to play sports: the career of women lawn bowlers. *Leisure Studies*, 24, 45-60.
- Holman, T. B., & Jacquart. M.(1988). Leisure-activity patterns and marital satisfaction: a further test.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0(1), 69-77.
- Kelly, J. R.(1997). Changing issues in leisure-family research-again. *Journal of Leisure Research* 29(1), 132-134.
- Kyle, G. & Chick, G.(2004). Enduring leisure involvement: the importance of personal relationships. *Leisure Studies* 23(3), 243-266.
- Orthner, D. K.(1975). Leisure activity patterns and marital satisfaction over the marital career.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37(1), 91-102.
- Orthner, D. K. & Mancini, J. A.(1990). Leisure impacts on family interaction and cohesion. *Journal of Leisure Research* 22(2), 125-137.
- Roberts, K.(2006). *Leisure in Contemporary Society*. UK:CABI.
- Scott, D. & Willits, F. K.(1998). Adolescent and adult leisure patterns: a reassessment. *Journal of Leisure Research*, 30, 319-330.
- Shaw, S. M.(1985). Gender and Leisure: Inequality in the distribution of leisure time. *Journal of Leisure Research* 17(4), 266-282.
- Shaw, S. M.(1994). Gender, leisure, and constraint: towards a framework for the analysis of women's leisure. *Journal of Leisure Research* 26(1), 1-8.
- Shaw, S. M.(1997). Controversies and contradictions in family leisure: an analysis of conflicting paradigms. *Journal of Leisure Research*, 29(1), 98-112.
- Shaw, S. M., & Dawson, D.(2001). Purposive leisure: examining parental discourses on family activities. *Leisure Sciences* 23, 217-231.
- Zabriskie, R. B., & McCormick, B, P.(2001). The influences of family leisure patterns on perceptions of family functioning. *Family Relations* 50(3), 281-289.
- Mattingly, M. J. & Bianchi, S. M.(2003). Gender Differences in the Quantity and Quality of Free Time_The US Experience.*Social Force*, 81(3), 1001-1030.

가족공유활동 증진을 위한 여가활동의 세대간 통합방안

김 유 경(숭의여자대학교 조교수)

가족여가에 대한 연구는 그 자체로서 매우 다양한 문제를 내재하게 된다. 우선 그 개념의 정의에서부터(가족성원 중 2인 이상이 함께 하면 가족여가인지, 또는 가족구성원 전체가 참여할 때 가족여가라 할 수 있는지), 가족 단위의 여가에 참여하는 가족구성원들이 모두 이를 여가라고 받아들이는지 여부(누구에게는 여가이지만 또 다른 누구에게는 일(노동)일 수도 있는), 또 여가라는 것의 본질에 대한 문제(여가를 주관적·심리적 개념으로 볼 경우 자유롭고 자발적인 참여가 중요한데 일부 가족구성원은 의무적으로 참여하고 있을 수도 있는) 등...

하지만 가족 단위의 여가를 논의하는 데 있어 연구의 목적에 따라 여가의 개념을 개인 단위 여가에서의 자유를 대신하는 의도 또는 목적이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접근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경우 가족여가가 가족 간 상호작용과 의사소통을 증진시키고 궁극적으로 가족관계의 질과 생활만족도를 높인다는 긍정적 기능에 초점을 맞추어 가족 간 여가활동의 공유를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인 만큼, ‘의도적 여가(purposive leisure)’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접근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따라서 가족여가의 본질과 관련한 문제들은 배제하고 가족 내에서의 여가활동의 세대 간 통합을 위한 방안을 중심으로 몇 가지 생각해 볼 내용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연구자는 여가활동의 공유를 통해 가족원 간 시간이나 금전 등 자원제약 부분을 보충할 수 있다고 제언하고 있다. 각 가족구성원이 과연 이러한 형태의 보충을 원하는가의 문제를 차치하고-청소년의 경우 부모와 함께 함으로써 가질 수 있는 여가활동에 있어서의 금전적 여유와 금전적으로는 부족하지만 친구들과 함께 하는 여가 중 어느 것을 더 원할지?-, 시간자원의 경우에는 과연 그것이 가능할지, 가능하다면 어떤 형식으로 가능할 것인지에 대해 의문이 든다.

유한성과 영합(嶺合)의 특성을 가지는 시간자원의 속성상 여가를 위한 시간이 부족한 경우 자신의 다른 영역의 활동에 대한 시간을 줄이는 것을 통해 여가시간의 확보가 가능하며, 다른 사람의 시간을 통해 자신의 시간을 보충 내지 보완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여가의 본질이 활동 자체로부터의 즐거움에 있는 만큼 노동의 경우와 같이 다른 사람에게로의 위임을

통해 시간 부족을 해결할 수 있기는 어려울 것이며, 여가활동을 위한 정보 수집이나 여가활동을 위한 준비에 해당하는 일들을 좀 더 시간이 많은 다른 가족구성원이 담당하는 정도의 보완이 가능할지 모르나, 혹시 그러한 활동 자체가 여가의 즐거움 중 상당히 큰 부분을 차지하는 요소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다음으로 생각해 볼 문제는 세대간 여가활동 통합에 있어서 여가제약과 여가에 대한 태도의 영향에 대한 것이다. 연구자도 여가활동의 세대 간 차이에 대해 논의하면서 같은 시대를 산 사람들의 경험과 사회환경적 조건에 따라 여가활동의 차이 뿐 아니라 여가에 대한 가치관에도 차이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에 의하면 우리나라 베이비부머들의 경우 여가활동 욕구는 높지만 실제로는 단조롭고 소극적인 여가를 보내는데, 그 원인은 여가경력의 부족에 있으며 성장과정에서의 환경의 영향으로 절약에 민감해 적극적이고 다채로운 여가생활을 즐기는 데 한계가 있다고 한다(한국일보, 2012). 여가제약에 대한 실증적 연구(박형석·박정열, 2012)에서도 시간제약과 금전제약 정도에 따라 여가만족도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으며, 이러한 제약을 느끼는 사람들 중 여가를 잘 즐기는 사람들은 이를 극복하기 위한 협상전략을 더 많이 사용할 뿐 아니라 여가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 이런 선행연구 결과들은 여가제약 뿐 아니라 여가에 대한 태도도 사람들의 여가활동에 매우 크게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연구에서 60대와 70대는 여가에 있어 시간 자원은 충분한 세대로 나타났는데 이들이 시간이 절대적으로 많다고 해서 그것이 적극적이고 활동적인 여가로 이어진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며, 이러한 사실이 이들의 금전적 제약에 전적으로 기인한다고 할 수도 없을 것이다. 이들 세대가 젊은 세대와의 공통의 관심사를 찾아 공유된 여가활동의 증대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금전적 제약이 적은 세대와의 여가공유를 통한 제약의 극복도 필요하겠지만, 이들이 가진 여가에 대한 가치관을 보다 긍정적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병행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참고문헌]

박형석·박정열(2012). 여가제약 연구의 비판적 고찰: 시간과 돈이 없어서 여가를 즐기지 못하는가? 여가학연구 10(1), 29-45.

한국일보(2012). 여가생활 즐길 줄 모르는 50대 베이비붐 세대. 2012년 12월 26일자.